



## 한·화란 농업기술 세미나 개최 — 오는 9월 15·17 양일간 서울에서 —

전국토의 3/1이 바다보다 낮아 경지면적이 극히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오늘의 농업입국을 이룩한 베델란드국과 양국의 우의를 다지고 농업에 관한 공동관심사를 토의하기 위한 한·화란 농업기술 세미나가 9월 15일과 17일 양일간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개최된다.

한국측의 주제는 “농경, 식량문제에 관한 제3차 5개년 계획”, “한국민의 식생활 변화양상(80년대)”, 그리고 “화란 농경상품 수입상의 문제점” 등으로 결정되었고, 화란측에서는 간척, 배수, 사료, 온실원예, 가금처리 목초재배, 화란의 영농자금 관리 등에 관하여 발표키로 하였다.

\*\*\*\*\*

### 수입쇠고기 포장육 판매

- 축협, 한국냉장과 합동으로 -

축협중앙회는 (회장: 김일로) 9월 1일부터 한국냉장과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수입쇠고기 포장육판매를 실시한다.

이 포장육은 전자자동계량방식에 의해 생산되며 포장규격을 다양하게 하여 정량 정가에 판매하는데 투명용기에 담아 저온유통체계에 의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한다.

판매가격은 정육의 경우 300g짜리가 1,500 원, 600g짜리는 3,000원이며, 갈비의 경우는 600g짜리가 2,400원이고 1kg짜리는 4,000 원이다.



△ 축협중앙회는 수입쇠고기 포장육판매를 실시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수입쇠고기를 한우육이라 속여파는 일이 없을 것이며, 또한 고기도 정량포장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어 획기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축협, 시범판매점 운영키로

### — 주택밀집지역 대상으로 —

축협중앙회(회장 김일로)는 육류유통상의 부조리 척결을 위해 8월 31일까지 축산물 시범판매점 10개소를 설치, 직접 운영키로 했다.

이번에 설치될 시범판매점은 축산진흥기금 10억원을 들여 6개 점포를 설치하고 4개 점포는 농협 슈퍼마켓을 활용할 계획인데 주거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설치키로 결정하였다.

축협은 이들 점포를 통해 각종 축산물의 시범판매와 유통관계자료 수집을 비롯 축산물 판매점의 운영선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 시범점포를 직영운영하므로써 시중정육점, 소매업자의 유통 부조리를 배제하고 양질의 육류를 정량판매하여 소비자 보호에 선도적 역할을 할 방침이다.

## 삼창기계(주),

### FEED BIN 제작설비

기업양돈장을 경영하고 있는 세진농산(대표: 오세진)은 경북 구미에 위치한 삼창기계(주)를 인수하여 사료공장을 상대로 농장의 Feed Bin을 제작하고 있다.

동사는 현재 사료공장 시설, 감리, 건설관계 프랜트, 각종 산업기계제작 설비를 하고 있는 바 이번에 최신의 기술로 선진 각국에서 많이 이용되는 Feed Bin을 양산할 계획이다.

동사는 경북 철곡군 양목면 교동 511번지의 부지 2만평 위에 최신식 공장을 건립하고 중부지역의 판촉활동을 위해 서울사무소장에 이경덕(전대 촉대졸)씨를 임명했다.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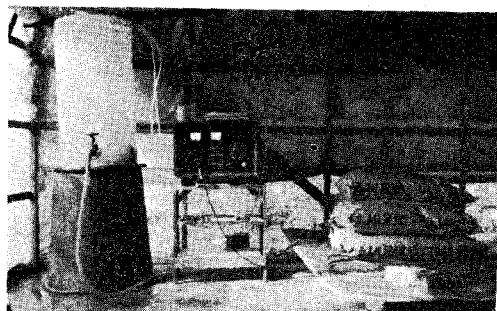
(본사·공장) 경북 철곡군 양목면 교동 511  
번지 ☎ (양목) 355~6

(서울사무소)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6미  
주상가 B동 517-3호 ☎ 966~9684

### 가금에 전자 농업 기법 이용

모든 생물은 항상 죄지않고 변화하고 있는데 각 생물에 따라 제각기 특수한 변화 과정을 갖고 있다.

동식물들은 끊임없이 성장 또는 노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 변화를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즉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농업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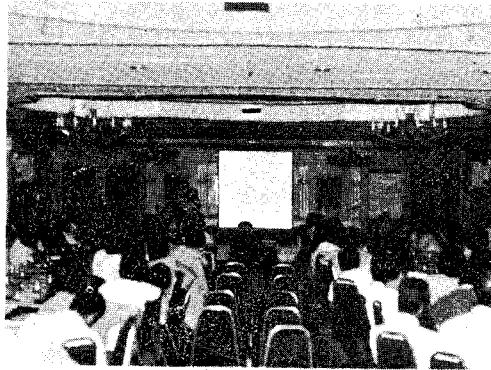


얼마 전부터 일본 등지에서 전자(電子)를 발생시켜 이로써 물질의 본질을 변화시키는가 또는 변화되고 있는 물질의 변화과정을 변경 또는 억제시켜 보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고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전자 농축산기법을 양계 산업에 도입하려고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시험 결과가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배합사료, 가축의 음수(飲水), 또는 밥에 직접 전자를 가하여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Tel 792~9057 한국전자물성연구소(韓國電子物性研究所: 申基元)로 연락하시기 바란다.

## 과학사료공사 세미나 성료

### - 미국 ELANCO 회사와 공동주최 -

동물약품제조회사인 과학사료공사(대표 : 신정재)는 Tylosin 원료공급처인 미국ELANCO 회사와 공동으로 “ELANCO 양돈세미나”를 지난 8월 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롯데호텔 2층 에미럴드룸에서, 그리고 28일에는 오후 2시부터 부산 문화관광호텔 9층 회의실에서 각각 개최하여 연인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성황을 이루었다.



스케줄 세미나의 현장(서울, 부산 세미나에 연인원 300여명이 참석하여 업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미국 ELANCO 한국지사의 지사장인 D. M. Robinson씨의 인사말로 시작되어 가축위생 연구소의 박정문박사가 ‘최근 돼지질병의 발생상황과 대책’이라는 주제 하에 강의를 진행하였고 이어서 ELANCO 회사의 Davis 박사와 중앙대 농대의 맹원재박사가 ‘타이로믹스와 타이로설파의 사용지침’에 관하여 강의하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각계 요로의 인사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으며 과학사료공사 임직원의 열과 성을 다하는 태도도 돋보였다.

세미나 또한 진지한 분위기를 시종일관 유지하였고 강의가 끝난 후의 문답에서는 양축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문제가 논의되어 참석자들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 사료곡물 도입전망 밝아

### - 미국, 옥수수 등 작황호조로 -

미국내의 곡물재배가 올해에는 평년에 비해 평균 20%의 증수를 보이고 있다.

옥수수는 지난해보다 16.4%가 증가한 77억 3,694만 1천 부셸, 대두는 15.9% 증가한 20억 1,746만 8천 부셸, 소맥도 15.9%가 증가하여 27억 4,739만 5천 부셸, 수수는 무려 41.7%나 증가하여 8억 3,347만 6천 부셸로 집계되고 있다.

단위수확량도 옥수수는 지난해보다 14.6% 증가하였고, 대두는 12.7%, 소맥은 1.8%, 수수는 32.2%나 증가하였다.

또한 경지면적도 1.4%~13.9%까지 늘어나 곡물이 큰 작황을 보여 올 하반기에는 국내사료원료인 옥수수 및 수수 도입이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비육우 3천두 도입

### - 농수산부, 한우계통출하농가에 입식 -

농수산부는 내달 중 비육우 3천두를 도입, 한우계통출하 농가에 입식시킬 계획이다.

농수산부에 따르면 축협을 통해 3천두의 비육우를 도입, 한우계통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두당 도입가격인 70~75만원씩에 농가당 1마리씩 정부지원 없이 전액 농가부담으로 입식시킬 방침인데 수입국 및 품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제 4 차 양계 및 사료 강좌

### — 오스트레일리아, 10월 개최 —

오스트레일리아 육계조합과 오스트레일리아 사료제조업자협회 그리고 세계가금학회 오스트레일리아 지부가 공동주최하는 제 4 차 양계 및 사료 강좌가 오는 10월 12일부터 15일 까지 호주에서 개최된다.

'80년대의 에너지와 환경'이라는 주제로 펼쳐질 이번 강좌의 참가자들은 향후 10년간 양계업계가 겪게 될 과학, 경제, 사회분야 및 조절면 등 전반적인 문제를 다룸에 틈으로써 미래에 대한 계획을 재평가할 계기를 갖게 되리라고 한다.

금번 강좌의 강사로는 가금학, 생리학, 부화, 질병, 사양 등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세계적인 석학 40여명이 초청되어 강연을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는 사람은 대한양계협회(편집부 : 22-6917)로 연락하시기 바란다.

## 세계가금학회 세미나

### — 10월 19·20 양일간 싱가포르에서 —

오는 10월 19, 20일 양일간에 걸쳐 싱가포르의 오베로이 세구호텔(IMPERIAL OBEROI HOTEL)에서는 "80년대의 양계산업 (POULTRY PRODUCTION IN THE 80'S)"이라는 제목으로 세계가금학회 세미나가 열린다.

이번 세미나에는 J. Fairbrother(세계가금학회장) 박사와 P. Siegal(세계가금학회부회장) 박사, 그리고 N. Robertson(세계가금학회 뉴질랜드지부장)씨가 강사로 참석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대한양계협회(22-6917)로 연락하시기 바란다.

## 사료업체 통폐합 움직임 활발

### — 과잉시설로 경쟁과열 —

현존 시설만으로도 향후 10년간의 수요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과잉된 시설로 인한 과당경쟁과 극도로 침체된 축산경기로 군소업체가 도산할 위기에 처할 지경이 되자 통폐합으로 활로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통폐합 범위는 평균 3개 공장을 통합 1개 공장으로 하여 시설근대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며 소요자금은 1개 공장당 약 3~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료협회측에서는 통폐합에 따르는 자금 일부는 축협이 추진 중인 ADB 차관 공장건설자금의 일부를 전용하므로써 충당시키고 나머지는 자체융자로 충당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안정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해 이번의 움직임은 성공적으로 끝나야 할 뿐더러 통합 이후의 대책도 충분히 마련되기를 축산업자들은 바라고 있다.

## 사료가 인하 움직임

### — 도입원료의 원가절감으로 —

최근 일부 배합사료회사들이 값비싼 탈지 강류 대신 외국에서 싸게 도입한 대두박과 수수 등 부원료를 사용하여 원가를 절감할 수 있게 되자 사료값을 소폭 인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계자들에 의하면 수수 및 타피오카 등을 도입하여 부원료로 사용할 경우 약 0.5%의 원가절감을 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번 배합사료가격의 인하폭은 약 3~4% 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 유지율 검정결과 각각 달라

### - 낙농가들 큰 피해 -

축협중앙회와 유가공업체의 유지율 검정결과가 각각 달라 물의를 빚고 있다. 즉, 지난해 축협이 241호의 농가를 대상으로 4천두의 유지율을 검사했을 때 평균 3.63%로 나타났으나 최근 유가공업체의 검정결과는 대체로 3.0%에 머무르고 있어 낙농가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들 하고 있다.

관련협회에 따르면 유가공업체로부터 지난 5월까지는 지방율을 3.6%로 인정받아 kg당 가격이 281원 80전이었는데 반해 유가인상 후 3.0%로 검정결과가 낮아져 kg당 275원 80전 밖에 받지 못해 낙농가들이 큰 손해를 받고 있다는 것. 또한 유가인상률로 계산하더라도 kg당 322원 60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가공업체에서는 유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0.6%나 낮게 지방율을 인정하는 등 낙농가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 '81 미농산물 对日 수출액 70억불 예상

USDA는 금년도 미국의 대일본 농산물 수출액이 지난 해보다 10억불이나 늘어난 70억

불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본에 대한 최근 3년간의 미농산물 수출액은 매년 10억불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의 일본농산물 수입액은 아주 적은 편이다.

미국은 현재 일본이 수입하고 있는 Citrus 총량의 98%를, 그리고 대두 95%, 옥수수 90%, 소맥과 연초는 각각 60%씩을 공급하고 있으며 면화 수입량의 1/3을 판매하고 있다.

### 보리배합사료 급여로

#### Cholesterol 함량 낮춰 함량

Wisconsin주립대학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보리와 곰팡이에 함유된 미지의 물질이 동물체내의 Cholesterol 함량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보리에 들어 있는 이 성분이 동물체내에서 Cholesterol 합성에 작용하는 효소의 기능을 억제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同大學 동물영양학자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보리를 기초로 한 배합사료를 닭에게 급여한 결과 계산물 중의 Cholesterol 수준이 30%나 감소하였으며, 배지에 보리를 급여한 결과 배지체내의 Cholesterol 수준 역시 40%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육류 수매 비축 키로

### - 농수산부, 값 하락 대비하여 -

농수산부는 소, 돼지 및 닭고기 값이 하락 할 것에 대비, 올해 안에 축산진흥기금 1백 17억원을 풀어 수매비축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농수산부가 마련한 육류수매비축 계획에 의하면 쇠고기 1천톤(5천마리분), 돼지고기 5천톤(10만 마리분), 닭고기 5백톤(50만 마리분) 등을 비축키로 하고 소는 마리(4백kg) 당 가격이 1백만원 이하, 돼지(90kg)는 12만원 이하, 닭(1kg)은 1천원 이하로 하락할 때 축협을 통해 수매할 방침이다.

## 삼우화학(주) 신제품 개발

### - 버지니아 마이신 -

삼우화학(주) (대표: 이완상)에서는 미국 스퀴브회사(E. R. SQUIBB & SONS, Inc.)와 독점기술계약을 체결하고 버지니아(Virginia) 마이신을 개발하여 시판에 돌입하였다.

본 제품은 브로일러와 양돈에 있어서 성장 촉진과 돈적리, 브로일러의 장염치료 등에 탁월한 효과를 지니고 있다 한다.

## 농수산물 출하상담실 개장

### - 용산 청과시장에 -

국내최초로 용산 청과도매시장에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농수산물 출하상담실이 문을 열어 업무를 시작했다.

농수산부, 서울시, 농협, 농업개발공사 직원으로 구성된 출하상담실은 앞으로 출하농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상인들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떠고 구두, 서신상담을 통해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게 된다.

## 축협, 내년부터 은행업무 취급

### - 균형있는 축산업발전에 기여하길 -

축협이 내년부터 은행업무를 취급하게 됨에 따라 전국의 양축가들은 자금지원이 원활해질 것을 기대,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협중앙회 소속 전국 92개 회원조합과 신설될 도지부에서 각각 예금 및 대출업무를 취급케 할 것으로 알려졌다.

## 세계가금학회

### 한국지부 세미나 및 정기총회

#### - 9월 5일, 안양에서 -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회장 오세정)는 1981년도 추계학술 세미나 및 정기총회를오는 9월 5일 안양 뉴코리아호텔 2층 크리스탈룸에서 갖는다.

양계산업의 안정된 기반을 구축하고 진흥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 많은 분이 참석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안정을 찾기 위한 도움과 격려를 해주기 바란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에 있어서 산란제관리의 최근 발전상'이라는 제목으로 미조리대학의 J. M. Vandepopuliere 교수가 강의를 하며 이어 '산란계에 있어 단백질영양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계속한다. 통역은 고대·지규만 박사가 맡는다.

서울대 오봉국교수는 '브로일러 육종기술의 전망'에 관한 강의를 맡는다.

강의가 끝나면 곧바로 1981년도 WPSA-K 정기총회가 열린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축위생연구소 계역 연구담당관실로 문의바란다.

전화: 안양 2-2151~5

## 업계단신



○ 단미사료협회 (회장 : 강대준) 8월 25일~28일까지 미국 캔스اس 주립대학의 사료과물학회가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차 출국. 이에 앞서 북미의 사료업체를 시찰하게 되며 귀국은 9월 6일로 예정.

이외에 한인규 (서울농대) 교수, 최진호 (전 북대농대) 교수, 전동수 (선진사료) 씨, 최병규 (남양사료) 씨, 정인식 씨, 유소열 씨 등도 참가.

○ 한국 축산 과학 연구소 (소장 : 한인규) : 한국 축산 과학 연구 보고서 제 1집 (153p) 발행한데 이어 지난 4월 개최한 제 1회 양돈산업 진흥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발표 논문집도 발간했다.

동연구소는 작년에 설립되었으며 이사장에 도윤도진 (서울경기 양계 협동조합장) 씨이고 영양사료, 육종번식, 경영유통, 방역위생의 4개 연구실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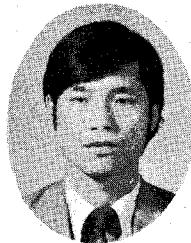
(한 인 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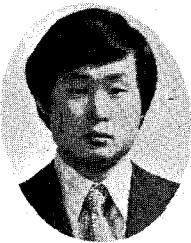
(김 길 원)

○ 한국바이엘화학 사옥증축 준공 : 동물약품 메이커인 한국바이엘 (주) (대표 김길원)은 지난 8월 8일 강서구 가양동 소재 본사에서 사세확장에 따른 사옥 3층증축 준공 기념식을 가졌다.

○ 선진사료 (주) (대표 : 이원복) : 경기도 이천에 초현대식 신공장의 시험 가동과 함께 젊음, 신용, 성실의 새로운 면모로 영업과장에 유재복 (전 부국사료) 씨와 생산과장



(유 재 복)



(유 태 호)

에 유태호 (전 흥성사료) 씨를 각각 기용하고 영업부에 박종원 (전 과학사료) 씨와 박규덕 (고대 축산과 졸) 씨를 특채, 동사는 지난해 10월 신공장을 착공한 바 있다.



(박 종 원)



(박 규 덕)

○ 한국바이엘화학 (주) (대표 : 김길원) : 영업부 경기신장지역 담당에 조정필 (영남대 축산과 졸) 씨를, 서부경남지역 담당에 신용창 (경북대 수의과 졸) 씨를 각각 기용.

○ 고태영 (수의사, 전 바이엘화학 근무) : 8월초 경기도 포천에 터미날 동물약품 상사 개설

주소 : 포천군 신읍리 42

전화 : 포천) 318

○ 중원농장 (대표 : 배선채) : 대구 출장소를 개설하고 소장에 정창식 (전 한일농장 출장소장)씨를 기용

전화 (73) 1993, 야간 (67) 9881

○ 삼우화학 <주> (대표 : 이완상) : 영업부 확장 및 보강을 위한 인사발령  
영업부장 박근수 (서울대 축산과 졸)  
부산영업소장 손종대 (전대 축산대 졸)  
영업 1 과주임 이재혁 (서울대 수의대 졸)

○ James K. Freckmann (미농무관) 환영리셉션 개최 : 신임 미대사관 농무관 J. K. Freckmann씨 환영식이 지난 8월 25일 미대사관 농업무역관에서 개최되었다.

Freckmann씨는 지난 6월 12일에 이한한 Shelden씨의 후임으로 한국에 왔는데 로마와 멕시코 주재 부동무관에 이어 나이로비 주재 농무관을 역임하였으며 지금까지는 위성턴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Freckmann씨는 지난 8월 13일에 착임하여 근무하고 있다.



△ 인사를 나누는 Freckmann 농무관 (좌에서 2 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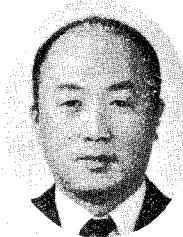
○ 권 배 (사료협회전무) : 사료곡물 수급회의와 실태조사를 위해 지난 22일 미국로 스엔젤레스로 출발

○ 흥성사료 (대표 : 정태원) : 영업부에 강노용 (건대 축대졸)씨를 기용

○ 한풍산업 <주> (대표 : 최죽송) : 영업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영업부대리에 유팽범 (전 제일종축 근무)씨를 기용

○ 수원계우회 (회장 : 최두훈) : 제 4 차 정기총회를 8월 29일 수원원천유원지에서 개최

○ 선진사료 (대표 : 이원복) : 경기도 이천에 일산 170M/T 규모의 공장을 설립하여 오는 10월 10일 오전 11시에 동사에서 준공식을 가질 예정



(0) 원 복)

○ 유한코락스 <주> (대표 : 홍병규) : 오는 9월 7일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미생물 사료첨가제인 특수유산균제제 LBC가 가축의 하리예방과 영양대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

○ 대한양돈협회 (회장 : 안병규) : 월간양돈 협회에 이원식 (전대 축산대 졸)씨를 특채

○ 최병인 (전 축협중앙회 이사)씨 : 8월 1일자로 매일유업주식회사 전무이사에 취임

○ 대림축산기구상사 (대표 : 오충강) : 전화번호가 8월 27일부로 (65) 1981에서 (57) 3453으로 변경됨  
주소 : 부산시 동래구 명륜 2동 676~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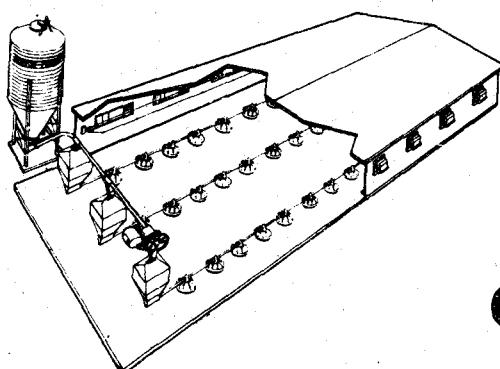
○ 전북수의사회 (회장 : 백영기) : 7월 31일 ~ 8월 1일까지 2일간 하계 수의사 연구회를 개최.

○ 천호부회장 (대표 : 이계조) : 신입 사원으로 김영태 (전국대 축산과 졸) 씨, 김태환 (전국대 축산과 졸) 씨, 황교혁 (전국대 축산과 졸) 씨, 김용자 (고대 축산과 졸) 씨, 조일호 (영남대 축산과 졸) 씨, 박승찬 (영남대 축산과 졸) 씨, 이승용 (중대 축산과 졸) 씨 이상 7명을 특채

○ 양승철 (태우동물약품 (주) 대표) : 지난 7월 20일 출국하여 미국의 축산업계 시찰과 경영인 세미나에 참석. 하와이, 뉴욕, 캐나다를 거쳐 8월 15일에 귀국

○ 김봉환 (경상대 농대 교수) 박사 : '가금 질병과 가금의 바이러스성 질병 백신 세미나'에 참석.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열렸던 이번 세미나에 김박사는 한국 대표로 참석

## 쵸어 타임의 어거방식에 의한 자동급이의 도입은 축산의 혁명입니다.



사료의 오염에서,  
사료의 훼손에서 보호되고  
일손을 덜어드리며  
보다 높은 수익성을  
위하여

**CHORE TIME**

농장의 자동화를 하시고자 하실 때는 언제라도 상의하여 주십시오. 놀라운 생산성과 경제성은 가지신 분만이 아닙니다.

悟 鎮 洋 行  
OHJIN CORPORATION

723-4125  
723-4128